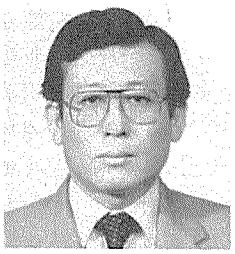

# 第2의 跳躍을 위한 轉換期

鄭 在 恩
三星電子(株) 社長

지난 '84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電子業界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電子立國의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

'83년 하반기부터 世界經濟의 회복세를 타고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나라 電子工業은 '84년에도 석유를 비롯한 原資材 價格의 안정세 유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호황을 누렸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노후시설 개체, 자동화 설비 및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新規事業着手 및 기존 시설의 확장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半導體, 컴퓨터, 通信機器를 비롯한 尖端技術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의 도입에 노력이 집중된 것은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올해에도 위축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국제시장에서 선진국 製品과 겨루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研究開發 및 品質向上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 변화해 가는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뉴미디어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및 기타 산업용기기에 대한 연구 및 新製品 開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가격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가속화될 조짐이므로 原價節減의 비중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海外市場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 업계가 Color TV 앤티덤핑 판정 등에서 단적으로 경험했듯이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정책에 따른 관세, 비관세 장벽의 수입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輸出伸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해외시장의 다변화 및 현지생산 체제의 확대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년의 국내시장 여건을 보면 불투명하긴 하나 금년의 景氣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電子工業製品의 전체 內需市場은 작년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제품의 보급률이 成熟段階에 이르렀고, 또 기존업체들의 생산시설이 대폭 증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경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국내 업체가 공존공영하려면 금년에는 각 업체가 過當 販賣競爭을 지양하고 實販賣 위주 전략을 추구하여 국내유통질서를 정립시키도록 노력하고 기존 제품의 과당 판매 경쟁보다는 신제품의 개발을 통한 新規需要 創出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 판매 경쟁의 열기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電子技術의 급속한 발전을 근간으로 하여 全部門의 자동화 및 시스템화의 진전으로 情報化 社會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國家의 盛衰가 그 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전자관련 기술경쟁은 극히 치열하여 어떤 산업보다도 기술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電子業界도 21세기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간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선진국에 발맞추어 技術 蓄積 및 尖端技術開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볼 때 올해는 우리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여부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70년대에 이어 제 2 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싯점에 있는 것이다.

三星電子는 이와 같은 여건에서 '85년에 닥칠 국내외의 단기적인 상황을 積極的으로 극복하는 한편 21세기를 선도해야 할 국민, 국가적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變身跳躍의 첫 해로 설정하고 기업변신을 근간으로 하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금년도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는 「生産의 2倍化」로 해외 新規市場의 개척 및 국내판매 급증에 따라 증가된 國內外 시장수요에 대한 조기 공급지원을 위해 全製品의 生産을 2倍로 증가시키려는 것이고,

둘째는, 「原價節減의 總力推進」으로 지속적인 제품가격의 하락추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나아가 企業體質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세째는, 「不良 Zero化 運動」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완벽한 品質水準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바, 우리의 品質管理는 가히 정착단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완벽한 品質檢査制度를 運用하여 불량률 0%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品質水準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고자 總力을 기울일 것이다.

네째는, 「市場對應 多角化」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海外 現地工場의 설립확대 및 모든 해외법인의 흑자경영을 유도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流通網 體系의 효율화, 물적 流通體系의 합리화를 통해 판매 경영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꾀함과 더불어 지난해 많은 발전을 보인 아프터 서비스 부문에도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섯째는, 「企業變身의 總力推進」으로 이는 급변하는 기업환경 및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가올 2000년대를 先導하는 尖端技術 三星電子」라는 선구자적 기업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全社的, 全面的 變身 計劃이다. 본 변신계획 골격은 기술변신을 통한 電子産業 부문으로의 이행추진 및 기존제품의 첨단화 재탄생화 추진, 생산능력의 극대화, 조직운용상의 변신, 경영관리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마케팅의 혁신, 新社風 造成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곧 미래 장기성장형 사업구조 구축을 위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집약된 것으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다.

여섯째는「教育의 強化」로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은 곧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변신에 선행되어야하는 개개인의 변신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교육이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금년을 「教育의 해」로 정하고, 技術·電算·語學 教育을 포함한 모든 교육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사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當社의 금년도 경영방침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과 같은 당면과제는 비단 當社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電子 關聯 技術,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면서 電子工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이 우리나라 電子業界에 커다란 고비가 될 것이다. 電子業界 전 가족의 이에 대한 심각성 재인식 및 그에 대응하려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모든 電子人 家庭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국내 전자업계 종사자 모두와 정부 및 관련기관의 총력 협동으로 電子工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21세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로서 電子立國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아울러 三星電子도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이익 및 21세기의 民族雄飛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